

5.15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 기념 수다회

남성의 평화, 여성의 평화



■ 언제 : 2010년 5월 15일 (토) 늦은 4시

■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http://corights.net>

병역, 기피 · 비리 · 거부 의 쟁쟁함

수하 (suha0420@gmail.com)

1. 병역거부, '기피'와 '이단'에서 정치적 투쟁으로

한국 사회에서 군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징병제도는 어떠한 배경 아래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일까? 1999년 12월 헌법재판소의 군가산점제도 위헌결정이 촉발한 논란은 페미니스트들이 위의 질문에 주목하도록 했다. 이들의 논의에서 징병제도는 남성에게 군인이라는 자기정체성을 중요하게 여기도록 만들고, 사회문화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여성을 '2등 국민'으로 위치시키는 핵심적인 장치라고 비판되었다. 또한 성별화된 군사주의 논리 - 남성은 국가방어의 담당자, 즉 보호자이며 여성은 국가방어 의무에서 면제된 피보호자 - 가 징병제도를 작동시키는 배경으로 조명되었다.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에서 바라볼 때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가시화된 병역거부 운동은, 성별을 근간으로 작동하는 군사주의 논리에 근본적으로 문제제기하는 투쟁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병역거부가 인권 사안이자 권리의 문제로 떠오른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그 이전까지 병역거부는 주로 기독교 내 소수집단인 '여호와의 증인'만의 종교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로 간주되어, 계속된 인권유린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받지 못했다. 오태양의 병역거부를 계기로 시민·사회단체들은 병역거부자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현재의 관행을 중단하고, 일체의 군사활동이 배제된 대체복무를 부여할 것을 요구했다. 사회민주화와 인권의식 성장이라는 시대적 변화와 함께 '비여호와의 증인' 병역거부자의 등장과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으로, 병역거부는 종교적 '이단' 그룹의 비정치적인 문제에서 해결해야 할 인권 사안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오태양 이후 현재까지 40여 명의 '정치적' 병역거부자들이 반전(反戰)·평화주의, 반국가주의, 생태주의, 성 정체성 등의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를 선언하고 법적인 처벌을 받았다. 그동안 비국민의 위치에서 조용히 감옥으로 끌려갔던 '여호와의 증인'들과 다르게 이들은 21세기에든 지속되는 제국주의 전쟁을 목격하면서 "군인이 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병역거부를 반전과 탈군사화를 모색하는 급진적인 평화운동으로 재인식하도록 했다. 이러한 병역거부 운동은 선언자의 적은 숫자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격렬한 논쟁과 반발을 불러왔는데, 논쟁의 내용은 '개인의 양심의 자유(병역거부권)' 대 '국방의 의무' 문제였다.

병역거부 운동은 징병제도가 존재하는 안보국가에서 남성만이 병역의 의무를 가진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국민국가의 성원권으로 연결된다는 것의 의미를 질문하게 한다. "총을 들 수 없다"는 남성들의 등장은 이제까지 군인이 되는 것을 정상적인 남성/국민의 의무로 여겼던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남성들 간의 차이를 가시화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차이를 드러내며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요구하는 병역거부 운동은 군사력에 기초한 국가안보의 당위성, 안보담당자로서의 남성정체성을 비롯하여 사회전반의 탈군사화와 평화에 이르는 고민들과 연결되면서 새로운 문제제기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병역의무가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는' 용기있는 남성의 행위이자 국민의 핵심적인 의무로 자리하고 있는 안보국가에서 병역거부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남성성이 결여된 '겁쟁이'의 행위로 인식되기도 한다. 병역거부는 병역기피와 병역비리에 대한 사회적 분노와

중첩된 반발에 직면해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병역거부 운동은 기존 남성성에 대한 저항의 가능성을 갖는 한편으로 (스스로를 병역비리 및 병역기피와 차별화하는 과정에서) 국민국가의 남성됨/국민됨에 대한 지배적 담론에 포섭될 수 있는 ‘모순’ 속에 놓여있다.

2. 병역거부 운동이 제기하는 물음: 안보국가와 남성

징병제도는 강한 안보논리와 국가주의 하에서 지속되었다. 안보논리의 핵심은, ‘외부’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 단위의 강한 군사력을 확보해야 하며, 남성이라면 누구든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되어야 한다는데 있다. 이렇게 국가 경계를 기준으로 외부와 내부를 ‘적(敵)’과 ‘아(我)’로 구분 짓는 사고는, 국민국가의 구성원을 보호자와 피보호자로 나누는 이분법과 연동된다. 안보국가에서 남성들은 계급, 학력, 성정체성, 종교와 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가족을 지키는’ 군사활동의 담당자, 즉 ‘보호자’로서의 정체성에 기초한 동질감을 갖게 된다. 반면에 여성들은 ‘피보호자’로서 ‘나라와 가족을 지키는’ 남성들을 위안하는 역할을 부여 받는다. 이렇게 적과 우리, 전방과 후방, 보호와 피보호를 나누는 이분법과 포함/배제의 정치학에 기초해있는 징병제도는 다시금 (남성은 보호자이고 여성은 피보호자라는) 성별화된 구분을 강화하고,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남성들을 ‘국민의 대표’로 만들어내고 있다.

제가 들어야 할 총은 누구를 겨누고 있습니까. 그 총이 슬픈 눈물을 간직한 사람들을 향한다면, 그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라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을 겨누고 있다면, 저는 총을 들 수 없습니다. 총이 향하고 있는 대상이 적대약이 아닌 한 저는 총을 들 수 없습니다. 적대약은 신화 속의 개념일 뿐입니다. <병역거부자 김태훈>

김태훈은 때로는 합법적 살인을 수행해야 하는 군인이 될 수는 없다고 이야기한다. 그는 추상화되고 절대화된 ‘적’이라는 개념을 현실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존재로 이동시키면서 “슬픈 눈을 간직한 사람들”을 향해 “총을 들 수 없다”고 말한다. 모든 폭력 행위 혹은 폭력이 행사되는 순간에는, 폭력 주체와 폭력 대상이 배타적인 존재로 설정된다. 폭력은 행위자와 대상자 사이에 그 어떤 공감, 소통, 연민, 관계성이 없다고 믿어질 때 가능해지기 때문에 극단적인 형태의 이분법적 인식론을 전제한다.¹⁾ 적(敵)과 아(我)라는 적대적 이분법은 ‘나와 연결된’ 타인을 향한 절멸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병역거부는 군인이 된다는 것이 국가의 경계 안에 간혀 극단적인 이분법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의 고통에 무감각해지는 과정인지도 모른다고, 이를 되돌아보라고 ‘촉구’하고 있다.

외세의 침략만을 받았을 뿐 침략전쟁에 동참한 적은 없다는, 공식적인 역사 서술과 달리 한국은 국경 안과 밖의 전쟁에 참여해왔다. 해방 후 국민국가 건설 과정에서 제주 4·3, 한국전쟁, 80년 광주 민간인 학살에 이르는 국경 ‘내부’의 전쟁이 이어졌고, 베트남,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에 전쟁참여를 했던 역사는 과잉된 안보논리 속에서 국가방어와 국가이익을 위한 것으로 미화되어 설명된다. 하지만 병역거부자들은 군대의 역할과 군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직접적인 전쟁수행과 연결 지어 바라보면서, 국가방어로 의미화되는 군대의 활동이 방어이자 동시에 침략일 수밖에 없음을 자각하고 자신들은 전쟁수행자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1) 정희진, 2005, 『페미니즘의 도전: 한국 사회 일상의 성정치학』, 교양인, 244쪽.

전쟁 피해를 받는 이런 게 예전에는 나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됐어. 그러니까 안타깝고 안됐다 북쌍하다 이 사회가 문제다, 내가 도박야지, 내가 이 사회를 바꾸어야 된다. 이런 정도 수준이었던 거예요. 어쨌든 피해자들 이런 거는 마음이 아프고 이런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뭐라고 할까 고통스러워한다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가 고통스러운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누군가가 고통을 받고 있는 게 이 전쟁 때문이든, 나 때문이든, 그게 좀 느껴졌다고 해야 될까. 전보다는 다르게 느껴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전쟁광이나 전투광, 전투머신으로 변하는 게 용납이 안됐던 거 같아요. <사례 D>

<사례 D>는 2003년에 일어났던 이라크 전쟁을 바라보면서 전쟁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다른 감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전쟁을 목격하면서 “예전에는 나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았던” 타인의 고통에 자신을 개입시키고, 고통에 공감하는 마음을 키워가면서, 결국에는 군인이 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한다. 그에게 군인이 된다는 것은 “전쟁광이나 전투광, 전투머신으로 변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는 ‘타인의 고통’을 향한 연대의식을 키우며 ‘군인이 된다는 것’과 ‘군대의 역할’에 의문을 품게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병역거부자들은 한국사회에 정상화되어 있는 남성의 군인됨이 결국 전쟁 시기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국가를 방어한다고 의미화되는 군사 활동이 국경을 넘어서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 질문하고 있다.

스티엄(Stiem)은 군사적 폭력이 언제나 효과적인 것으로 여겨져 그 필요성이 요구되고, 그것이 오직 남성에게 의해서만 전유되는 것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사회를 보호자와 피보호자로 이분화한다고 지적한다. ‘타자’, ‘외부’, ‘적’에 대한 두려움은 곧바로 보호자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하고, 그 역할을 지배적 권위자의 위치에 놓아 피보호자들이 그들의 희생에 기꺼이 감사하게 만든다.²⁾ 군사 활동을 우위에 놓는 안보국가에서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위치는 성별화, 위계화된다. 병역거부는 이렇게 위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국가방어자로서의 남성정체성에 대한 도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군인이 되지 않겠다는 선언은 군복무를 통한 성원권 획득에 대한 포기로 귀결된다.

3. 병역거부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드러나는 병역의무의 정치학

병역의무에 대한 공식적인 언설의 장 밖에서는 군대 가기 싫다는 ‘어둠의 자식들’의 원성 또한 대단하다. 하지만 군복무를 피하고 싶은 열망은 군대의 역할에 의문을 표현하는 것으로 연결되기보다는 ‘모두가 가기 싫은 군대’이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빠져나가는 건 용납할 수 없다는, 병역 이행에 대한 상호집단감시의 태도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연예인과 사회 특권층의 병역문제는 뜨겁고 민감한 사안이다.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해서 자동적으로 병역면제를 받았던 가수 유승준은, 대중여론이라는 초법적 권위 하에 입국금지를 당했고 병역기피 혐의를 받은 연예인 남성들은 국민과 국가를 상대로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해야 한다. 이처럼 병역의무에 대한 획일적인 태도와 ‘공평하게 희생해야 한다’는 논리 속에서 병역거부는 병역이행자의 분노와 피해의식을 유발한다. 그러나 사실 병역거부에 대한 반발과 피해의식의 이면에는, 군인이 될 수 없다는 남성들의 존재가 국가방어자라는 남성 집단의 정체성을 흔들고 남성성을 훼손한다고 느끼는, 병역이행자의 모멸감이 자리해있다.

이렇게 분노를 자아내는 병역거부는 국가안보와 더 나아가 국가의 ‘평화’를 저해하는 불온한 행위로 간주되기도 한다. 국제질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장”으로 바라보는 소위 현실주의자

2) Stiehm, Judith, 1982, "The Protected, the Protector, the Defender.", Women's Studies's International Forum 5(3/4): 367-76.

들은 평화를 목적으로 하는 병역거부가 오히려 평화를 해치는 결과를 낳는다고 이야기한다. ‘임박한 위협’을 직시하고 군사력을 갖추는 것, 이를 통해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 국가의 ‘평화’를 지키는 방법으로 사고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되는 평화란 전쟁부재의 상태를 의미하는, 힘의 우위를 통해서만 구현 가능한 강자중심의 평화다. 병역거부를 불온한 것으로 취급하는 태도 속에서, 평화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병역거부자의 이야기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상상력으로 활용되지 못하게 된다.

자기의 부모, 형제, 처자가 상상되는 것을 보고도 가엾히 있는다면 이는 측은지심(惻隱之心)이 없어 인(仁)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의심되고, 이러한 상상을 보고도 분기하지 않는다면 이는 수오지심(羞惡之心)이 없어 의롭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의심되고, 다른 사람의 수고와 희생의 결과로 얻어지는 안전을 누리기만 하는 것은 사양지심(辭讓之心)이 없는 것이니 이는 예(禮)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의심되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침략의 위험이 목전의 것이 아니라 하여 이를 외면한다면 이는 지혜롭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인(仁), 의(義), 예(禮), 지(智)가 이치런 의심스러운 행위는 그 보편타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그러므로 침략전쟁을 방어하거나 방어를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총(執銃)을 거부한다는 것은 보편타당성을 가진 양심의 소리라고 인정하기 어렵다.³⁾ <재판관 권성>

위의 인용문은 ‘병역법 위헌제청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문(2004년 8월 26일)’의 별개의견 중 일부이다. 여기에서 재판관 권성은 병역거부가 임박한 침략전쟁에 대한 ‘방어’를 거부하는, “인의예지” 없는 행동임을 역설한다. 외부의 위협이 존재한다는 것이 보편타당성을 가진 사실이며, 남성이라면 이에 대비하여 국가와 가족을 지켜야하는 것이 상식인 사회에서 병역거부는 다른 남성들의 수고로움에 기생하여 ‘보호’를 받겠다는, ‘양심 없는’ 행위로 간주된다. 이와 같은 안보논리 속에서 드러나는 국가방어자의 남성성은 잔혹한 착취자의 모습이 아니다. 그렇다기보다 오히려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바치며 대의를 위해 희생하는, 기사도의 남성성에 가까운 것이다.⁴⁾ 이처럼 군복무는 ‘훌륭한 신사’인 보호자의 역할로 여겨지기 때문에 병역거부는 피보호자를 위협에 빠뜨리는, 남성답지 못한 행위로 간주된다. 하지만 이러한 사고는 ‘적’의 존재, ‘방어’라는 이름의 군사 활동 자체에 질문하지 않은 채 남성의 소임을 군인이 되는 것에 고정시키는 것이다.

대체복무를 요구하는 병역거부 운동은 병역 이행의 ‘평등’을 깨뜨려 군복무자의 열패감을 자극하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취급되기도 한다. 이처럼 병역거부가 군인의 ‘사기’와 ‘명예’의 문제로 이동하는 과정은 한국사회의 징병제도가 전 사회의 심리적, 감정적 격려 행위에 기초하여 유지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지만 군복무는 국가방어자로서 남성의 의무, 국민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사기충천한 개인의 의지와 관련되는 것만은 아니다. 비공식적 언설의 장에서 남성들은 ‘돈 없고 백도 없어서 끌려왔다’며 스스로를 동원의 피해자로 위치시키고는 한다.

‘대체복무’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체복무를 신설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체복무라는 것도 어쩔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대체제라고 한다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면서 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분

3) [헌법재판소 결정, 2004년 8월 26일, 2002헌가1,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중 재판관 권성의 별개의견에서 부분인용.
4) Young, Iris Marion, 2003, "The logic of masculinist protection: Reflections on the current security state", *Signs*; Autumn 2003, vol. 29, no. 1.

들은 ‘일체의 병역의무에는 종사하지 않겠다’, 말하자면 개인화기를 소지하고 있는 업무에는 일체 종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 군사훈련도 받지 않고 심지어는 국가가 적의 침입을 받아서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서도 국가를 위해서 나가 싸우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하는 일이 병역을 대체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병역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병역을 면제해달라고 하는 주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나 ‘대체복무’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가 받아들여지기 힘든 용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5) <정창인(재향군인회 안보연구소 연구위원)>

위의 내용은 2005년 3월 17일에 열렸던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역법중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회의록의 일부다. 공청회는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임종인과 노회찬이 각각 상정한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병역법중개정법률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정창인은, “병역의 의무라는 것은 유사시에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울 의무”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는” 사회복지기관 근무로 대체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기초 군사훈련도 받지 않고”, “국가를 위해 나가 싸우지 않겠다”는 남성이 이 사회에서 성원권을 인정받을 수는 없다는 논리다. ‘현실주의자’들은 무력분쟁에 대한 ‘상상된’ 위협을 강조하면서 남성의 기본역할을 ‘전사’로 위치시킨다. 때문에 “4주간의 군사훈련조차 받을 수 없다”는 병역거부의 신념은 법적처벌을 받아 마땅한 것이 된다. 안보국가에서 전사가 되기를 거부하는 남성이 위치할 자리는 사회가 아닌 감옥인 것이다.

우리 각자가 낡은 희생으로 낡이 흥건, 우리 아버지 형제 우리 선배의 피땀과 희생으로 그동안 나의 안락한 안락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차례가 돌아왔을 때, 내가 군복무를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와 수혜를 낡아 사회에 갚아야 할 때가 왔을 때 양심이 어떻고 평화주의가 어떻고 하면서 군복도 입지 않고 징총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종교를 떠나서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양심과 도리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 <제성호(중앙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같은 공청회 자리에서 대체복무에 반대 입장을 보였던 제성호는 ‘우리가 “아버지, 형제, 선배의 피땀과 희생”으로 “안락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군복무는 남성의 “피”와 “땀”의 결정체이며 ‘우리’의 생존을 가능하게 해준 “은혜”로운 것으로 의미화된다. 그는 병역거부가 사용하는 양심을 비꼬면서, 총을 들지 않겠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즉 남성으로서의 기본적인 양심과 도리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말한다. 베네딕트 앤더슨은 근대 민족주의 문화의 상징으로 무명용사의 기념비나 무덤보다 더 인상적인 것은 없다고 한다. 7) 근대 국민국가는 공통의 기억과 경험을 가진 공동체로 상상되는데 독립묘지와 전쟁기념관은 ‘외적’의 침입이라는 공식적 트라우마가 집합된 의례의 장소이며, 현충일, 국군의 날과 같은 공식기념일에 벌어지는 일련의 행사는 대한민국이라는 국민국가가 전사들의 ‘희생’에 기초해 형성됐음을 알려주는 의례행위이다. 국민국가는 남성/전사들의 ‘목숨을 건’ 행위를 치하하고 군복무를 ‘외세’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지키는 수고로운 희생으로 의미화한다. 이처럼 전사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행위는 남성중심적 국민정체성을 형성하는 동력이다.

5) 국회, 「병역법중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제252회-국방제3차 회의록(서울: 국회사무처, 2005), 12~13쪽.
 6) 국회, 「병역법중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제252회-국방제3차 회의록(서울: 국회사무처, 2005), 20쪽.
 7) 베네딕트 앤더슨, 2002, 『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윤형숙 옮김, 나남출판, 29쪽.

4. 병역거부 운동의 성별정치학: ‘기피’가 아닌 ‘거부’

징병제도가 유지되는 한편에서는 이에 저항하는 개인들이 존재해왔다. 징병제도의 역사는 병역에 대한 기피와 거부의 역사이기도 하다. 사회 일각에서 병역거부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면서 일제시기 신사참배 거부를 이유로 치안유지법 위반 및 불경죄로 처벌되었던 이들이 ‘최초’의 병역거부자로 발견되기도 하였다.⁸⁾ 군 입대를 피하려는 개인들은 군대와 국가의 경계를 넘어 탈영자가 되거나⁹⁾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여 병역면제를 시도하기도 했지만 이러한 기피 행위는 특권층의 병역비리 관행과 중첩되어 사회적인 병폐로만 여겨져 왔다. 병역법 제86조는 병역기피를 ‘도망, 신체손상, 사위행위(詐僞行爲) 등을 통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으려 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병역기피’라는 말에는 국민의 기본 의무라는 법의 권위 그 ‘신성함’ 앞에 주눅 들어 있는, 비겁한, 부정한, 꾀많은 등 온갖 뉘그러한 뜻을 뜻하는 수식어들이 뒤범벅되어 있다.¹⁰⁾

사회적으로 병역기피자들이 늘어가는 것은, 한 두 명의 문제면 모르겠는데 모두가 군대 가기 싫어하잖아. 또는 내 똥이 어딘가 티 안 나게 아팠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잖아. 그런 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거 같아. 굳이 병역거부자들만 (저항)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자신의 수위에 따라서 자신의 똥에 폭력을 가하면서까지 그렇게 병역을 기피하는 행동도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행동이라고 이해하고. 그런 저항도 저는 의미있게 평가하거든요. 그 사람들의 언어인거죠. 자신이 할 수 있는. <사례 9>

그러나 병역거부자인 <사례 J>는 사회적 낙인과 혐오가 덧씌워진 ‘병역기피’를 다른 방식으로 읽어낸다. 그는 “군대 가기 싫어하는” 기피의 감정과 태도를 병역거부와 중첩되고 연결되는 지점에 위치시킨다. “자신의 몸에 폭력을 가하면서까지” 병역을 피하려는 태도를 폭력적인 군대문화와 군사화된 체계에 대한 “저항”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종교적 신조나 반전사상적 입장에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일’로 정의되는 병역거부와 달리, ‘병역기피’는 국방의무의 ‘신성함’을 대체할 만한 신념을 갖추지 못한 사소한 행위로 여겨진다. ‘꺼려서 피한다’, ‘싫다’와 같은 군복무에 대한 태도는 비정치적이고 개인적인 영역의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당당하게 저항하는’ 거부와 달리 기피에는 맞서 싸우기 보다는, 무섭거나 두려워서 회피하는, 명예롭지 못한 태도라는 낙인이 덧씌워져있다. 군대 내에서 끊이지 않는 사건과 사고, 높은 자살률, 심각한 인격침해는 남성들이 군대 가길 꺼리게 되는 큰 이유이지만 ‘병역기피’가 만드는 물음과 저항의 가능성은 병역거부와는 다른 층위의 낙인과 혐오 속에 갇혀있다.

김대중이 굉장히 인권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아는 것도 많은데 김대중이 맞들어낸 희한한 말이 ‘양심적 병역기피자’ 아니야? 나는 김대중이가 맞실수를 한 게 아니라 일부

8) 홍영일(2002), “양심적 병역거부와 여호와의 증인”, 『양심적 병역거부』, 사람생각. 및 한홍구(2003), 『대한민국사 3』, 한겨레신문사. 참조.
9) 1960년대 박정희 정권 당시 베트남 전쟁 파병을 거부하여 군부대에서 탈영하였던 김동희라는 인물이 존재한다. 그는 일본으로 밀항한 뒤 투옥되었다가 일본정부가 망명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북한으로 갔다고 한다(와다 하루키, 1988, “한·일 연대운동의 사상과 궤적”, 『창작과 비평』, 61호, 창비. 참조).
10) 정유진, 2007, “병역거부에 대해서 상상한다는 것”, 『두레방에서 길을 묻다』, 도서출판 인. 341쪽.

러 그 표현을 썼다고 생각해.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니까 김대중이 양심적 병역 거부는 지금 자기 단계에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겠지. 근데 병역기피는 진짜 빼먹는 거고, 양심적 병역거부는 여태까지 계속해서 감옥에 갔잖아. 자기가 (병역거부)선언을 한 사람들은 병역기피가 아니라 감옥 갈 거를 알면서 선언을 하는 거 아니야. <사례 6>

병역기피에 덧붙여진 낙인은 병역거부 관련 활동을 해왔던 <사례 C>가 받아들이는 것처럼 양심적 병역기피라는 용어를 모순적으로 만든다. 기피라는 명명은 병역거부자의 신념과 병역거부 행위를 평화와 반전이라는 공공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개인의 안녕을 위한 사소한 행위로 전환시키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이다. <사례 C>가 설명하는 것처럼 현실에서 병역거부와 ‘병역기피’가 드러내는 결정적인 차별지점은 군대를 “대신”해서 감옥에 가는가, “희생을 감수하는가”의 여부이기도 하다. ‘비애국적’이고 ‘이기적’이며 ‘비양심적’이라는 비난과 반발 속에 있는 병역거부 운동은 이렇게 공공선을 목적으로 하며 처벌을 감수하는 병역거부자의 도덕성을 강조하면서 사회적 설득력을 갖출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한다.

내가 몇 년 동안 병특을 준비했잖아요. 근데 그냥 병역거부를 해버리면 나 자신에게 떳떳하지 못할 거 같아요. 사람들도 내가 병특 준비하는 거 알고 “아~ 재가 병특 안되니까 저러는구나”, 충분히 오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자격증을 따자. 그게 뭐 어떤 명분을 쌓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떳떳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어머님은 “그거 왜 떳냐?”고 하는데 저 자신에게는 떳떳해서 그게 좋았어요. <사례 K>

병역특례를 준비했었던 <사례 K>는 병역거부를 하기로 결심한 뒤에도 당장 필요하지 않은 병역특례용 자격증을 따겠다고 한다. <사례 K>가 굳이 자격증을 따던 이유는 “병특 안되니까 병역거부 한다”는 주변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스스로에게 떳떳해지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병역특례 자격증을 이용해 현역 군복무가 아닌 방위산업체에서 일할 수 있었음에도 “4주간의 군사훈련조차 받을 수 없어서” 1년 6개월의 감옥수감을 선택한다는 그의 태도는 ‘거짓된 신념을 가장한다’는 낙인을 불식시키고 사람들을 감화시키기도 하였다.

2004년 발의된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입법안(병역법중개정법률안)’에는 대체복무 도중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의 확신을 빙자한” ‘허위 병역거부자’로 발각될 경우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¹¹⁾ 이렇게 진짜와 가짜 신념을 구분하고, 병역거부와 ‘병역기피’의 차이를 강조하는 과정은 ‘군대 가기 싫어하는 거 아니냐?’, ‘군대 가기 싫어서 특정한 신념이 있다고 거짓말 하는 것 아니냐?’라는 반대논리와 ‘오해’를 설득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했다. 하지만 기피와 거부의 구분 속에서 군인이 되고 싶지 않은 태도와 기피의 신념은 비정치적인 영역에 남겨진 채 병역거부자는 더욱 더 강한 신념과 도덕성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거센 반대와 처벌 논리 속에 있는 병역거부 운동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병역기피’와는 차별화된, 특별한 내용의 신념과 태도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산업기능요원을 하려고 할 때는 군대가 싫었고요. 일반적인 이유... 겁나기도 하고. 그

11) 임종인 의원 대표발의(2004년 9월 22일), 「병역법중개정법률안」 제86조의2(양심적 병역거부자 인정의 허위 신청 등)

다음에 그런 게 저한테는 공포였는데, 내가 조금 이렇게 남자답지 않게 생겼기 때문에 영국이 하얏고 동양에다가. 지금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 “아, 너 같은 애들은 워천하다”고 “(허리를 구부려 바닥에 있는)비누도 झाँ면 안 된다”고 하고. 그게 쏘 겁이 많이 났어. 성추행 쪽으로 되게 겁이 났고. 군대 가는 게 싫었고. 그래서 최대한 군대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서, 산업기능요원을 생각했어. <사례 H>

군대 내에서 성폭력이 일상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된 병역거부자 <사례 H>는 한때 현역 군복무 대신 산업기능요원을 준비했었다고 한다. 그에게 군대는 성폭력의 위협을 감수해야만 하는, “겁이 나는”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그가 군대생활에 대해 느꼈던 ‘두려움’은 공식적인 병역거부 소견서에는 담겨있지 않다. 폭력적이고 남성적인 군대문화가 성폭력을 사소한 것으로 만들지만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은 공개적으로 밝히기 어려울뿐더러, 병역거부의 이유로 설득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사례 H>는 “어떤 거창한 이유 말고 굉장히 사적인 이유로 군대를 거부하는”, “병역기피로 오인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거창한 이유”와 “굉장히 사적인 이유”라는 구분은 병역거부를 일정정도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담론의 틀 안에 놓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것은 기존의 정치와 비정치, 공과 사라는 구분에 기초한 것이며, 병역거부가 제기하는 물음들을 특정한 틀 안에 가두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군대문화에 대해 느꼈던 두려움과 그에 기초한 저항감은 변화를 피하는 거부의 이유로 사용되지 못하고 개인적인 영역으로 남겨지고 만다.

흔히 군복무를 피하려는 태도는 남성성이 결여된, 나약하고 열등한 존재의 것으로 취급되고는 한다. 일례로 1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의 병역거부자들은 “쓸모없는 인간”, “기생충”, “겁쟁이”, “남자답지 못한 병역기피자”라고 불렸다.¹²⁾ 이렇게 군복무를 피하려는 태도를 예외적인 것으로 취급하는 과정을 통해 군복무는 남성다움을 입증하고 남성연대를 확인하는 장으로 유지된다. 병역불이행이 남성성이 결여된 행위라는 ‘낙인’의 과정 속에 있는 병역거부는 역설적으로 남성다움의 증명을 통해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하기도 한다. 과거 기독교 역사에는 “약한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여 병역거부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던 사례가 있다. 기독교도인 마르틴(Martin, ?~397)은 “죽음이 두려워서 병역을 기피한다”는 ‘비난’에 직면하여 십자가를 들고 전장에 나가 부대의 선두를 지키는 행위를 통해 그의 용기를 증명했고 그 결과로 제대를 허용 받았다.¹³⁾ 이러한 사례가 보여주는 것처럼 병역거부자는 전쟁을 수행하는 남성전사의 그것만큼이나 강한 용기의 소유자임을 입증해야만 ‘합법적’ 성원권을 획득할 수 있다.

병역거부자가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이라는 법적 처벌을 받는 현실은, 강한 신념의 소유자이자 나약함을 ‘거부’하는 병역거부자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러한 이미지는 운동의 설득력을 높여내는 주요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병역거부 운동의 초기 과정부터 긍정적인 관심을 기울였던 한 시사주간지의 경우 ‘정치적’ 병역거부자들을 다루는 기사에 “양심은 감옥을 이긴다”라는 제목을 달았는데 이를 통해 병역거부자를 ‘감옥을 이길’ 정도의 강한 신념을 가진 존재로, 즉 존경받을 만한 남성으로 재현해내고자 했던 것이다.¹⁴⁾ 병역의무의 ‘신성함’이 강조될수록 병역거부는 그것을 대체할 만한 정도의 신념과 태도를 요구받기 때문에 강한 용기와 같은 남성다움을 증명하고 동원해야 하는

12) Early, Frances H., 1997, *A World Without War: How U.S. Feminist and Pacifists Resisted World War I*, Syracuse University Press. 및 Goossen, Rachel Waltner, 1997, *Women Against the Good War: conscientious objection and gender on the American home front, 1941-1947*,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참조.

13) 김두식, 2007, 『평화의 얼굴: 총을 들지 않을 자유와 양심의 명령』, 교양인. 105쪽에서 재인용.

14) <한겨레 21>, 519호(2004.7.29).

갈등 속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숭고한 목적을 위해서 위협을 감수하거나 목숨을 내거는 용기는 남성 전사의 용기에서 출발한 남성성의 전통위에 서있는 것이다.¹⁵⁾ 동시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웅적인 전사의 이미지는 실제로 전쟁을 경험하는 병사들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남성의 군인됨을 독려하는 이데올로기일 뿐이다.

징병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독일과 대만에서는 병역거부자에게 ‘대체역’을 부여하는 반면 한국 정부는 군복무 기간에 상응하는 긴 기간 동안의 실형이라는, 일괄적인 처벌만을 고집해왔다. 현재 유지되고 있는 대체복무제도를 개선하여 ‘4주간의 군사훈련만을 면제하라’고도 설명되는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는 안보논리와 병역 이행의 형평성을 강조하며 그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대체복무 요구에 대한 반대여론 이면에는 무한경쟁의 신자유주의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남성들의 군복무에 대한 피해의식이 작동하고 있다. 많은 경우에 남성들은 집단합숙 생활을 하며 위계와 복종의 질서를 견뎌야 하고, 제대 이후에는 경쟁사회에서 밀려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군복무를 주저하게 된다. 그 무엇도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는 일’을 대체할 수 없다는 반대담론의 다른 한편에서, ‘군복무에 비견될 만큼’ 육체적·심리적으로 어렵고 더 긴 기간 동안의 집단합숙 생활이 전제된다면 대체복무를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찬성논리’는 결과적으로 국가방어라는 ‘공공선’에 동참해야 하는 남성들의 피해의식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처럼 병역의무에 대한 집단화된 피해의식에 대응해야 하는 병역거부 운동은 군복무자들의 분노에 앞에서 순응적인 태도를 취하도록 요구된다. 병역거부에 대한 가혹한 처벌의 역사는 이와 같은 태도를 강화하는 배경으로 작동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징집제가 존재하고 있는 조건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더 많은 복무기간과 어려운 조건이라도 그것이 자신의 양심에 반하지 않는 것이라면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할 것이며 그런 선택의 폭을 조금 더 넓혀 줄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할 땐 대면 저 역시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온몸 바쳐 헌신하고 싶습니다. <병역거부자 유호근>

많은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오지의 초등학교에서 무보수의 교직생활을 하든가, 길거리의 노숙자들을 보살피는 봉사를 통해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고 싶은 것입니다. <병역거부자 오태양>

위의 병역거부 소견서에서 ‘정치적’ 병역거부자들은 군사활동에 기초한 병역이 아닌 자신의 신념이 존중받을 수 있는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해달라고 이야기한다. 병역거부 운동 초기에 등장하였던 이들은 순응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병역거부가 국민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병역을 ‘대신할’ 다른 의무에 대한 요구는 군사활동에 기초한 남성성과 국민의 역할에 있어 변화를 야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간곡하게 촉구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병역거부의 주체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 온몸 바쳐 헌신하는” 주체이자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는 주체이다. 국가에 기여할 자격과 기여정도에 대한 기준이 성별화되어 있는 조건 위에서 펼쳐지는 이러한 설득의 정치학은, 국민의 위계를 인정한 채 의무의 주체인 남성들 간의 연대에 기초한 국가주의 담론 안에 포섭된다.

15) Brown, Wendy, 1988, "What is to be done: toward a post-masculinist politics", *Manhood and Politics: A feminist reading in political theory*. Totowa, N.J.: Rowman & Littlefield. 및 Sparks, Holloway, 2001, "Dissident Citizenship: Democratic Theory, Political Courage, and Activist Women", *Theorizing Feminism: parallel trends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edited by Anne C. Herrmann and Abigail J. Stewart, Boulder, CO: Westview Press. 참조.

5. 병역, 기피와 거부의 연대를 위하여

아리 폴만 감독의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바시르와 왈츠를>(2008)에서 주인공은 망각된 기억을 좇으며 자신이 레바논에서 벌어졌던 팔레스타인 난민학살에 연루되었음을 성찰한다. 전장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군인들은 영웅적인 전사의 이미지와 같등하는데, 이러한 같등은 극단적인 폭력행위를 증폭시키는 한편으로 전쟁의 영웅담 밖에서의 침묵을 강요한다. 영화는 침묵 속에서 마침내 잊혀져버린 전장의 기억을 추적하여 피해와 가해, 과거와 현재, 전장과 일상을 연결해낸다. 이렇게 지워진 기억 속의 가해의 역사를 고통스럽게 돌아보는 주인공의 태도는 병역거부가 이 사회에 제기하는 물음들과 연결되어 있다.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전쟁을 경험하였음에도 군대의 역할과 군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한 물음과 마주하기를 회피해왔다. 가해의 역사를 돌아보려던 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 학살 논의는 물리적 협박과 함께 파병군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리고 이러한 비판은 병역거부에도 이어져 병역거부자들의 공개적인 등장은 군인의 명예와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반발을 불러왔다. 군인이 된다는 것을 성찰하는 병역거부자의 목소리는 새로운 사회를 구성하는 가능성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여전히 “나라는 누가 지키나?”, “이기적이다”, “파렴치한 병역기피다”라는 성별화된 국가안보담론에 갇혀있다.

병역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의무, 공동체에 대한 책임, 적에 대항하는 용기, 그리고 그러한 용기를 명예롭게 하는 정의 등의 가치로 구성되어있는 개념이다.¹⁶⁾ 병역의무가 차지하는 위상과 그것의 의미는 국민국가라는 정치공동체의 성격과 국민의 자격조건을 규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병역거부를 포함하여 병역기피와 병역비리에 대한 사회적 논란, 군가산점제, 여성징병제를 둘러싼 논의들은 이처럼 군사영역의 위상과 사회구성원 간의 위계를 재조정하려는 시도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병역거부와 관련된 논쟁은 병역의 의미와 위상을 재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보다는 병역거부자의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문제로 축소되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병역거부는 제도개선으로 해결되거나 흡수될 수 없는 물음을 남겨두고 있다. 군사활동에 기초한 남성성의 정상화와 국민들 간의 위계가 만들어지는 사회에서 군사화에 저항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평화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국민이 된다는 것과 군인이 된다는 것 그리고 남성다움이 강한 연관을 갖는 사회에서 병역거부는, 그리고 병역거부로 인해 촉발된 논쟁들은 이러한 질문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렇지만 병역거부 운동이 제기하는 질문을 평화정치학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나약함과 기피를 긍정적으로 재해석하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¹⁷⁾ 한국 사회에서 ‘병역기피’라는 단어는 공공선에 기초한 최우선적인 의무와 남성들 간의 의리를 저버리는 파렴치하고, 나약하고, 비열한 행위를 의미하는 불명예스러운 언어가 되어버렸다. 이러한 낙인과 혐오를 돌아보고 ‘겹쟁이’를 재해석하는 작업은 병역의무가 작동하는 정치학을 드러내는 한편으로 평화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과정은, 전쟁에 대한 반대로서의 평화라는 협소한 의미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를 비롯한 ‘비국민’들과 ‘타자’들의 공존에 기초한 평화, 사회구성원들의 평등과 돌봄에 기초한 보다 확장된 의미의 평화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될 것이다.

16) 권김현영, 2007, “평화의 정치학을 위한 모성적 사유: 남성중심적 안보개념에 대한 비판”, 『한국여성철학』 제7권, 한국여성철학학회, 18쪽.

17) 정희진, “‘양심적 병역기피’를 옹호함”, 『씨네 21』 (2005.12.30). 참조.

군사주의와 폭력에 대한 다른 물음

보라(전 WAW 활동가)
purpleavenue@daum.net

* 권력의 진공(vacuum) 상태로서의 평화

- 해러웨이: 면역체계는 어떤 낯선 것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자기(self)를 인식해야 한다; 몸이 아프기 위해서는 한 개의 박테리아와 "친근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 감염이 되기 위해서는 "공격을 당하는 세포들이 증진되는 박테리아들을 실제로 도와주어야 하며, 생물학자들은 이것을 실수라고 가정한다".

- 어떤 평화활동가의 말: 평화는 "폭력을 없애가고자 하는 운동"

폭력이 발생하게 되는 '관계'를 설명하거나 폭력 자체를 맥락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그 자체로 제거의 대상으로 보는 견해. ⇒ 폭력의 병리화, 비정상화.

- 이 언설이 제거한 것은 폭력이 아니라, 권력에 대한 분석이었으며, 이것은 결과적으로 자기(self)에 대한 분석을 멈춤으로써 사고의 긴축을 낳았다.

ex) 평화운동에서의 '남성성'이 구성되는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제까지 성폭력에서 다루었던 남성성과 다른 프레임으로 보아야 할 것. 이는 지배하기 위한 폭력이라기보다는 보호를 요청하는 과정에서의 폭력이기 때문.

- 평화를 폭력과의 관계에서 'not 폭력'으로 위치짓는 정치학의 문제: 수동성과 규범성

특히 규범적 의미로서의 평화는 탈정치화됨과 동시에 약자에게 군림하는 이념이 되기 쉽다는 것. → 이것이 위치성 없는 totalism. 이렇게 자기 위치를 가지지 못하면, 이 이분법적 구도를 깨는 돌파구도 만들 수 없다.

- 이는 폭력의 청정지대를 만드는 사유의 습관을 낳았다.

ex) 비폭력/비무장/

이론 담론들이 가지고 오는 효과는. 그리고 그런 힘의 진공 상태를 만들었던 우리는 어느 샌가 권력에 대한 분석을 멈추고 '도처에 널린' 폭력들에 움짱달짱 못하게 되거나(공포의 확대→인간안보 개념의 다양한 변주들) 아니면 평화가 규범이 되거나("평화주의자가..어떻게"), 그것도 아니면.. 도를 닦았다(마음의 평화).

- 그간 여성주의 평화연구에서는 남성들의 핵심적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징집, 군대, 전쟁 등의 메커니즘이 성별화된 구조를 은폐하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그리고 또한 한편으로는 전쟁vs 평화라는 허구적인 이분법을 깨기 위하여, 일상화된 전쟁(폭력)의 구조의 작동방식을 드러내면서 일상의 곳곳에 배어있는 군사주의 문화에 대해 문제제기 하였다.

- 하지만 이러한 분석이 진행되면 될 수록 군사적 폭력의 힘은 '우리'를 엮매이게 하는 강력한 힘으로서 위치지어졌고, 이는 '우리'를 더욱 약자화 하는 방식으로 작동되었다(강하고 (그래서) 더러운 폭력 - 폭력 당하는 소수자'들). 그리고 이런 구도는 더 이상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한동안 담론의 정체를 겪기도 하였다. 특히 독재정권에 대한 경험과 여전히 실시되고 있는 징병제로 인해 '강력한' 군사주의적 사회라고 하는 한국사회에 대한 현실인식은 이러한 분석을 더욱 강하게 뒷받침해주고 있었다.

- 군사주의 비판담론이 폭력의 형태를 고정된 것으로 봄으로써 이를 강력한 것으로 만드는데 기여했고, 한편으로 폭력을 더욱 미시화된 권력의 형태로 분석할수록 이를 탈출할 공간을 만들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런 담론적 정체와 무력감은 사실상 이러한 논리구조가 갖는 예정된 결과이기도 하다.¹⁸⁾

* 권력공간에 젠더를 위치짓는 방식: 성원됨의 사유방식

- 이때 자기(self)의 자리를 마련하는 방식은, 국가에 대한 배타적/종속적 타자로 위치시키는 방식이었던 것. 그제 바로 "국가가 먼저인가? vs 여성이 먼저인가? 라는, 질문.

⇒ 유기체(政體)로 볼 것인가? vs 개체(자아에 대한 소유권)로 볼 것인가?

- 이때의 여성은 국가, 사회적 관계 등과 따로 떨어진 독립변수인 것처럼 등장되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여성의 (비)가시성'이라는 문제의식도 가능케 된 것. 주어진 장(field)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위치로서. 이것은 실제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가능하다고 해도 문제. 즉 여성이 평화

18) 내가 2005~6년까지 속해 있었던 소규모의 페미니스트 평화그룹에서는 해소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우리가 지속할 수 없었던 두 가지의 이유를 공유했다. 하나는 군사주의 비판담론을 생산하면 할수록 빠져나올 수 없는 미시적인 권력망으로 인해 담론의 생산자가 무력감에 빠진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현장(field)에 속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국가·남성중심적인 담론과의 투쟁은 구체적인 힘을 갖지 못한다는 데 있었다. 이 두 가지의 이유는 사실상 하나의 문제로 인해 비롯된 것이었는데, 이는 폭력, 국가, 남성 등의 범주를 맥락적으로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이런 범주를 더욱 추상화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상화가 가능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이들 권력의 효과와는 '거리'를 둘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서울은 곧 국가로 통하고, 이는 보편으로서 편재(遍在)하기 때문에 특정한 장소가 없는 공간(placeless)으로 위치지워지기 쉽다. 그러나 군사적 폭력은 제주도의 '바당'마을이 해군기지의 '적정지'가 된 것처럼 국가와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땅-바다를 기반으로 하는 공간(place)에 대한 사유가 너무나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운동과의 관계에서, 국가와의 관계에서 가시화되면, 그것은 어떤 의미?

- "개체는 구속된 우발적 사고이지, 지구 역사에서의 노동의 산물이라는 최고의 결실이 아니다"(401)

- 폭력(을 비롯한 모든 권력)은 특정한 행위가 아니라 관계를 통해 생산되고 작동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이라는 것과, 그 일상을 구축하는 '군사적 폭력'이라는 것은 다시 정의되어야 하며, 그것은 특정한 시·공간에 근거한 경험을 통한 것일 수밖에 없다.

- 그래서, 지금-이곳은: 군사적 폭력이 추상적인 위협이나 동원/배제의 형태가 아니라 오키나와처럼, 제주에서처럼 '먹고 사는 문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작동될 때, 이를 무엇이라 명명할 것인가? 이는 다시 폭력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그때의 폭력은 무엇에 대한 침해 혹은 박탈인가? 이러한 남아있는 물음들.

'군사주의' '라는 레이드 막보를 잡기 위한 파티를 광고하며

효웅 (dreamsnail@naver.com)

1. 너의 말이 그냥 나는 웃긴다

요새 이효리의 신곡 '치티치티뽕뽕'에서 "너의 말이 그냥 나는 웃긴다"는 가사가 콧 가슴팍에 와 닿았습니다. 큰집을 가는 것도 억울한 판국인데 상처 난 데 소금뿌리는 제가 감내해야 했던 혐오발화들이 돌이켜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대부분 논거와 근거가 부재한 완패 막심한 행패였다는 것을 알게 된 이상 그들의 말이 그냥 웃겼습니다. 치티치티뽕뽕 가사처럼 "넌 상대가 안 돼. 쓸데없는 참견 말고 가던 길 갈래"라고 말하며 백배 천배 양값음을 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젠더와 군사주의'라는 이번 수다회의 주제에서 병역거부자이자 퀴어인 저의 독특한 정체성과 병역거부+커밍아웃한 퀴어라는 남들보다 앞서가는 나만의 경쟁력이자 유니크한 스펙들은 "My body is battle ground"라는 바바라크 루거의 작품명처럼 다양한 담론들이 교차하고 충돌하는 부분을 설명해줄 수 있을 듯 합니다. 제가 그런 존재가 되었으니까요. 왜 온라인 게임에서도 이도저도 아닌 하이브리드 캐릭터가 순수 캐릭터들보다 능력치 면에서 떨어집니다. '망캐'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이브리드 캐릭터기에 자유자재로 직업변화는 용이해서 전천후 캐릭터 되기도 합니다.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게 된 그런 제가 여러 운동들이 만날 수 있는 중매쟁이같은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게임으로 따지자면 '군사주의'라는 레이드 막보를 잡자고 서로 종족 및 직업들은 다르지만 다 같이 파티를 맺자고 마을에서 공개 창에 대고 광고하는 형국이랄까요? 제 몸에 너무나 많은 스펙들이 쌓여져 있어서 —물론 마이너스 스펙이지만요— 그래서 다음 글들은 아마 악플에 가까운 글들이 될 듯 싶습니다. 제가 요새 댓글 차단 을 하도 많이 당해서 악플을 못 달아서 한풀이 할 데가 없었거든요.

2. 퀴어운동이 나는 웃긴다

솔까말 설익은 티 팍팍 나는 저의 병역거부소견서를 제가 다시 읽어보고 있노라면 낮 뜨거워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고 손발이 다 오그라듭니다. 그만큼 쪼렘이었던 당시의 저는 정서가 불안했었고 언어도 부재했으며, 지금처럼 중언부언하고 횡설수설하며 우왕좌왕하고 좌충우돌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때에 비해서 나아진 건 멀치 똥만큼도 없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퀴어운동 진영에 억하심정이 있었던 것이, '왜 우리같은 게이들을 나약하고 여성스러운 존재로 스테레오 타입화시키냐', '너가 뭐가 잘났다고 나서서 사회로부터 우리를 비양심(?)적인 병역기피자처럼 보이게 하냐'는 불멘소리부터, 심지어 제가 당할 사법적 처벌이, 거칠게 말하자면 제가 콩밥을 먹게 되서 '쌈통이다', '고소하다'는 식의 이명박 따귀 때리는 경천동지할 논조의 글에는 정말이지 억장이 다 무너지고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듯 한없이 야속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같은 편이라고 믿었던 몇몇 게이들이, 위로는 해주지 못할망정 오히려 저를 이지메루 할 때는 정말 세상에 믿을 녀 하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동병상련은 커녕 탐킬을 하다니... 호미 빌려간 년이 알고 보니 감자 캐간 년일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제가 병역을 거부하고 세상에 회자됨으로 인해서 비가시화된 채 조용히 숨어 살던 당신네들이 사회적으로 필

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반사회적이고 비양심적인 존재들로 여겨지고 치부되는 것이 지탄에는 싫었나 봅니다. 저를 어물전 망신 다 시키는 꼴뚜기쯤이나 온 물을 흐리는 미꾸라지쯤으로 여겼던 게지요. 그런데 저는 물 좋은 편에 속하는 것 같고, 무엇보다 병역을 기피하던 이행하던 그 여부와 상관없이 지 같은 퀴어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사회에서 비양심적인 존재로 치부되는 이치도 모르다니, 그냥 너의 말이 나는 웃깁니다([(병역이행>양심^국민)^^(퀴어>~국민)] ∴ 퀴어>~양심).

프란츠 파농의 말처럼 “흑인의 타자는 흑인이다”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설사 백번 양보해서 그들의 위의 논거들이 전부 타당하다손 치더라도, 대관절 창졸간에 금방 도살장에 소 끌려가듯 큰집으로 급구속이 되어 곧 수인의 몸이 될 세계, 그런 모질고도 오만정이 다 떨어지는 말들을 굳이 해야만 했던 건지... 지금 생각해도 참 야속하고 한편으로는 패씹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부아가 치밀고 천불이 일었던 것은, 제가 병역거부를 하며 게이인 제 자신을 설명해야했던 여성성과 여성주의가 “젠더 본질주의적이다”라는 합리적인 의견과, 혹은 그렇기에 이런 사유들로 군대를 갈 수 없다는 저의 주장이 오히려 “게이를 (하자있는) 열등한 존재로 치부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리적인 의견에는 최고로 가슴이 아프고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저는 군대를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뭔가 부족하고 열등한, 그 능력이 무엇이나면 ‘남성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토익이나 자격증 말고 남성성도 스펙으로 좀 준비해놓을걸 그랬습니다. 사실 지금도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데 마초들 무서워서 헬스장도 못갑니다. 뭐 좋은 구경은 하겠지만요. 요새야 저도 하도 더러운 세상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저도 어상반 거진 마초가 다 되었지만 말입니다. ‘게이가 여성주의와 여성성을 이야기하는 게 본질주의적인 거라면, 명제논리의 후건부정식이 성립하므로 ‘진정 해체적이고 탈주적인 것은 게이거나 남성성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가 성립하나 봅니다.(게이^여성성>본질주의≡~본질주의>~게이^남성성)

퀴어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가야만 하는 것이지...퀴어정체성보다 대한민국 국민의 정체성이 선행하는 것인지... 어떤 게 페르소나인지... 퀴어가 언제 국민인적이 있었나요? 아니, 꼭 ‘국민’이어야만 할까요? 그러니. 퀴어운동이 평화주의와 군사주의에 개입해야 될 백가지 이유가 있다고 이연사 힘차게 외칩니다. 퀴어들이 병역뒤편을 했다고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땃땃한 열혈남아가 될 수 있는줄 안다면 아나 떡입니다. 호모 사케르가 군대 간다고 호모 코레아니쿠스가 되는 일은 언감생심 어렵 반쯤어치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군대가 시민권을 부여하고 남성되기의 통과의례를 호명하는 대문자 타자라지만 퀴어들이 이런 호명에 응답하고 예비역의 위치를 자아-이상으로 동일시한다 해서 주체/국민이 될 수 있다고 여긴다면 지나가던 광우병 걸린 미친 소가 파안대소할 일입니다. 또한 군대 자체가 이러한 젠더 호명을 통해 자신들에게 가장 억압적인 마초적 이성애 남성 주체를 자아-이상으로 제시하는 가장 강력한 권력기제중 하나임을 도외시한 채 퀴어 해방을 바란다면은 그건 가을에 제야비 제사도 못 지내면서 봄에 의붓아비 제사 지낼 걱정하고 앉았는 격입니다.

물론 퀴어 진영은 군사주의 문제를 단순히 사돈이 남 말하듯, 소가 닭보듯 남의 일처럼만 여겨온 것 이라고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퀴어운동 진영에서도 많은 열의와 성의를 갖고 이 문제에 관심을 가 열차게 기울여온 점을 비아냥거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점에서 퀴어진영이 좀 더 썩지 팡이를 쪼고 군사주의 문제에 미주알고주알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만가지 문제들이 산재한 척박한 퀴어운동 진영이 당장 제 코가 석자인 것은 이해하지만, 퀴어 병역거부자 개인의 신념에 따른 당사자의 문제로 치부하거나 군대를 법적이고 사회적 시민권을 얻는 방편이나 도구, 혹은 국민국가공동체에서는 징병제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여기는 방식은 영 아니올시다 입니다. 아우슈비츠에서 나찌에게 고난을 받으사 하늘나라로 돌아가신 게이 선배님들이 지하에서 땅을 치고 통곡할 일입니다.

젠더 이분법과 남성중심주의, 이성애중심주의에 모멘텀을 주는 군대와 군사주의, 그리고 무엇보다 젠더와 평화주의의 문제를 거론치 않고선 단순히 퀴어 병역거부자나 군인권 피해자의 당사자 문제로 치부하거나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은 마당 터졌는데 솔뿌리 찾고 앉았는 격입니다. 그것은 게임에 빗대어 말한다면 적 진영 몹들을 중립NPC로 혼동했다가 맞아 죽는 일입니다. 군대는, “진정한 남성이 되기 위해 군대를 갔다 오겠다”라는 남성 연예인들의 인터뷰 발언에서 보듯이, 한 글자도 보태거나 빠짐없이 글자 그대로 “남성”을 항상-이미 호명하는 대문자 타자입니다. “남성이 되기 위해 군대를 간다”라면, 그전에는 대한민국 남성들이 죄다 여성이었다는 말인가요? [(남성≡군대≡~군대≡여성) 군대가 성전환수술 시켜주는 것도 아닐텐데 말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퀴어-되기를 장려하는 것도 아니고 “군대 가서 남성이 되어서 돌아 오겠다”(원빈)는 연예인들의 면피성 발언은, (젠더 이분법 사회에서는 남성 아니면 여성이므로) 그동안 여성으로 살아왔음을 자인하는 커밍아웃이 아닌지.. 왜 이런 커밍아웃은 회자되지 않는 걸까요. 원빈같은 꽃미남이 FTM트랜스젠더 였다는 건 홍석천보다 곱절은 쇼킹한 뉴스일텐데 말입니다.

군대는 이처럼 다양한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억압하며 천편일률적이고 획일적인, 폭력적이며 공격적인 남성성과 국가주의와 남성우월주의로 똥똥 뭉친 ‘대한민국 열혈남아’로 가래떡 뿜듯이 뿜아내는 ‘남성 떡 공장’인 것입니다. 이런 강력한 젠더 생산 떡 공장인 ‘군대’를 문제 삼지 않으면서, 난민 신세인 퀴어들도 엄연한 국민이 될 수 있을 꺼라 착각하는 희망 고문은 미안하지만 아나 떡입니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하는데 김칫국부터 원샷하는 일이랄까요?. 군대가 무슨 난민심사국인가요? 그렇게 해서 얻어낸 시민은 군사주의와 국가주의, 자본, 군대라는 이데올로기(초자아, 아버지의 법)의 호명과 담론을 통해 주체로 탄생하게 되는 이성애 남성에 다름없습니다. 이런 주류동일시적 욕망은, 군대와 군사주의라는 배치로 인해 생긴, 대타자에게 할당된 주체를 욕망하는 분열된 욕망입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은 남성의 욕망을 욕망하듯, 퀴어라는 비체 역시도 남성이라는 대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는 것입니다.

퀴어라서 군대를 ‘못’가는 논리나 ‘안’가는, 퀴어‘도’ 군대를 가야한다는 물귀신 작전이나 다 같이 똥 밟는 게 평등으로 착각하는 지금의 이중 주문적인 담론들은 양자택일만을 강요하는 복합질문의 오류입니다. 마치 고참들이 후임들에게 “나한테 반말해도 돼”라는 뭘 선택하던지 간에 어차피 맞게 되있는 사악하고 골 때리는 장난처럼(반말하면 반말했다고 때리고 존댓말하면 시키는 대로 안했다고 때리고) 어차피 때릴려고 했고 맞게 돼있는 그런 불합리한 질문입니다. 비오는 날은 비오는 날대로, 맑은 날은 맑은 날대로 자식 걱정한다더니, 지금 이 시간에도 군대로 끌려가고 있는 퀴어들은 군대를 가도 걱정, 안가면 더 걱정입니다.

지금의 한국의 군대체제로서는 도저히 퀴어들이 군대를 갈 수 없게 만들면서도 가지 않을 수 없게 꿈 만듭니다. 군대를 가는 것도, 안 가는 것도 모두다 ‘미션 임파서블’에 가까운 사면초가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퀴어들도 가야한다’나 ‘퀴어들은 갈 수 없다’는 의무와 배제, 평등과 동일성의 논리가 아니라 ‘퀴어 이기에, 더욱 군대를 거부하는’의 백가지 이유가 성립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대를 안 가는 것이나 못가는 것의 논점을 일탈해서, ‘퀴어이기에, 더더욱 친구따라 강남 갔다가 헛걸음하고 오는 꼴이 아닌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퀴어들은 못 간다, 혹은 제발 오지마라, 어여 와라는 논리나, 퀴어들도 가야한다, 퀴어들도 가고 싶다, 퀴어들이 왜 못가나는 주류 담론의 상징적 언어에 갇힌 피비우스의 띠같은 순환논증을 떠나서, 병역거부든 모병제든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처럼 다른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징병제와 군사주의의 텔로스의 끝에 ‘평등’이나 ‘국민’이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은 아나 떡입니다. 태생 자체가 호모 포비아

인 군대를 내버려둔 채 호모 사케르인 퀴어들이 호모 코레아니쿠스가 될 성 싶은 줄 안다면 택도 없습니다. 화장도 안하고서 세수하겠다고 덤비는 꼴입니다. 군대를 간다고 비체가 주체가 될 순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군대와 군사주의적 남성성에 대해 악플을 달지 않는 퀴어 운동이 그냥 웃깁니다.

3. 예비역 마초들이 그냥 나는 웃긴다

예비역 마초들의 심리는 이 말 한마디로 정리됩니다. 이 이상 어떤 분석보다 그들의 분기탱천을 설명하는 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바로 ‘열폭’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일본식 조어로 알고 있는데, 지보다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장애인, 병역거부자, 성소수자에 대해 열등감을 폭발하는 ‘열등감+폭발’이라는 ‘열폭’이라는 말이야 말로 군대에서 갈굼당한 그 서러움을 화풀이하는 것을 유사 이래 인류 역사상 가장 잘 압축하여 설명해주는 가장 시크한 말입니다.

종로에서 뺨맞고 한강 가서 화풀이한다더니만, 국방부가서 뺨맞고 여성부애다가 화풀이하고 병무청에서 뺨맞고 전쟁없는세상에다가 화풀이하는 격이며 고참한테 뺨맞고 병역거부자들에게 화풀이하는 것입니다. 여성이나 병역거부자와 같이 군복무를 안 하거나 못 하는 자들이 땅을 산 것도 아닌데 대관절 왜 사춘이 땅을 산 것처럼 터무니없이 엄한데서 배 아파하는지도 도무지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대체복무제 도입되면 성들도 혜택을 입을텐데,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대체 왜 그리도 모병제와 대체복무제를 기를 쓰고 결사반대를 하는 건지도 도통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들이 평상시에 얼마나 국익이나 애국에 신경을 썼다고. 지나가던 소가 비웃을 일입니다. 병역거부자들과 평화운동진영에서 주장하는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자다가도 떡이 생길텐데 가만히 굶이나 보고 떡이나 먹을 일이지 되먹지 못하게 왜 괜한 강짜를 부리고 심술궂게 생트집을 잡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예비역들은 이미 군복무를 마쳤으니 화장실 가기 전 심정이랑 갔다 오고 난 다음 심정이 달라져서 대체복무제, 나아가서 모병제는 어차피 못 먹는 감이니, 찢러나 보자는 고약하고 막 되먹은 심보겠지요. 그래서 솔직한 심정으로서는 이런 위인들까지를 위해서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대체복무제와 모병제 운동을 해야 하는 건지 솔찬히 다 때려 치고 싶기도 합니다. 군대내 인권운동 역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면야 좋겠지만, 대체복무제나 모병제가 도입되면 자기들도 좋을 꺼면서 괜히 객기와 호기를 부리는 것을 보자니 남 좋은 일만 시키나 싶어서 굶판 벌리고 싶어도 만며느리 춤추는 꼴 보기 싫어서 안하는 심정 같달까요? 길 닦아놓자니 미친년이 먼저 지나가는 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달까요?

특히나 병역거부자와 병역기피자에 대한 혐오는 용호상박이요 호각지세요 난형난제요 좌청룡 우백호인데요 이들의 논리는 이런 것 같습니다. “군복무를 하지 않는다면 비양심적이다. 그런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군복무를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양심이 없는 것이다.” (양심 ≡ 군복무 ≡ ~군복무 ≡ ~양심 ^ 양심적 병역거부자 ≡ ~군복무 ∴ 양심적 병역거부자 ≡ ~양심)

이들이 열폭크리를 하는 이유를 지적과 라캉의 ‘과잉 향락excessive enjoyment’의 개념이 잘 설명해준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이론보다, 정신분석적으로 군대를 가기 싫어하거나 군대를 못 견뎌서 고생한 자들일수록 대체복무제와 모병제를 기를 쓰고 반대하고 병역거부자에 대해 극심한 혐오를 해대는 이 기괴하고 도착적인 현상에 대해서, 충격과 공포 속에 설명을 잘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라캉과 지적에 의하면 법은 그것이 배제하고자 하는 것을 기반으로 제정되는데 다르게 표현하자면 법을 거스르고 위반하고자 하는 욕망이 바로 법의 존재 자체의 전제 조건이다. 초차아는 한편으로는 주체의 욕망을 규제하는 상징적 구조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욕망에 대한 몰상식하

고 맹목적인 명령이기도 하다. 지젝과 라캉은 주체가 법과 그것을 위반하고자 하는 욕망 사이의 긴장을 피하는 길은 전무하며 이 욕망 자체는 '죄의식'으로 표현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초자아는 법인 동시에 그 자체를 파괴하는 것, 즉 법을 훼손시키는 부분이기도 하다.

원초적 아버지와의 동일시는 주체가 법이라는 권위와 함께 법을 위반하고 훼손하려는 불법적 욕망과 일제히 동일시하는 애매모호한 과정이다. 초자아와 더불어 아버지라는 개념 역시 매우 역설적인 방식으로 기능한다. 그는 권위의 작인인 동시에 그가 다른 이들에게 공포한 법을 적극적으로 위배하는 법 밖의 인물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주체가 권위에 복종하고 자신의 욕망을 규제하기 위해 내재화해야 하는 기표는 그 자체가 법의 경계 너머에 존재한다. 심리적으로 과도하게 응징적인 초자아와 상징계에 대한 복종은 이러한 견디기 힘든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주체가 선택하는 한 방법이다. 그러나 이것이 암시하는 바는 만약 우리가 어떤 것을 금지하기 위해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야만 한다면 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욕망도 그 만큼 강력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제 이러한 범법과 응징의 악순환이 어떻게 사회에 적용되는가. 타자를 비인간화하는 과정이 타자의 권력과 영향력에 대한 과장과 함께 수반되는 이중 과정이 일어나는 것이다. 특정 집단이 너무나 작거나 하찮아서 우리가 쉽게 그들을 진압할 수 있다면 왜 그리 야단들이란 말인가?

유토피아적 이상주의는 항상 이러한 유토피아의 실현을 저지하는 음모와 모반과 위협들에 대한 환상을 동원한다. 지젝에 의하면 이 때문에 공동체가 그 자체의 현실을 통제되고 조화로운 구조로서 인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심부에 존재하는 내부의 본질적 갈등을 억압해야만 한다. 다른 말로 바꾸면 유토피아적 환상이 기능하기 위한 전제는 체계의 일부가 부인되고 억압되는 것이며 그 효율성은 이 과정이 얼마나 성공적인가에 달려있다. 왜 한국 남성들이 명백히 억압적인 군대를 지지하는가? 이를 아버지라는 개념의 모호성과 라캉이 초자아의 향락에 대한 명령이라고 부른 것을 참조해야만 한다. 주체가 지도자/아버지라는 인물과 동일시할 때 그/그녀는 오이디푸스적인 역량과 권위의 위치와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주체는 원시부족의 잔인하고 방탕한 아버지라도 동일시하게 된다. 만약 우리가 쾌락과 향락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의 지위를 강탈하고 대신 그 위치를 점유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역량과 잠재력이 과장된 이미지는 이제 다른 '소수'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타자'들은 우리가 가지지 않은 어떤 것을 소유하며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가 얻지 못하는 쾌락을 느낄 수 있다는—일종의 잉여surplus를 가질 때만 효력으로 발생한다. 병역거부자에 대한 혐오가 심리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강탈당한 것으로 인식되는 불가능하고 불가해한 향락이 타자에게 속하는 것으로 가정되어야만 한다.

지젝은 역설적이게도 주어진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것은 법을 위배하는 것과의 동일시라고 주장한다. 더욱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공동체를 하나로 결속시키는 방법은 타자에게 과잉 향락excessive enjoyment을 귀속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타자에게 과잉 향락을 귀속시키게 되면 그것은 주체에 대한—자신의 향락에 대한—절도를 의미하게 된다. 이러한 정신구조의 본질적 모호성은 모든 사회 질서에 필수적인 구성 요소이며 그 사회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향락의 '과잉'은—'타자는 게으르지만 그래도 우리보다 더 많이 즐기고 있다; 그들은 우리의 힘든 노동에 기생한다'등과 같이—항상 타자에게 귀착된다. 이와 더불어 타자의 향락은 반드시 우리의 향락을 박탈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어떤 것이 존재하며 우리가 그것을 견여하고 있다고 가정함으로써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것을 타자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타자는 우리 자신의 경험 너머에서 향락의 차원을 경험하는 것으로 설정된다. 우리는 타자가—그들이 병역거부자들이건, 여성이건, 동성애자이건—우리의 주이상스를 훔쳐갔다고 가정한다.

결국 법을 집행하지만 법 밖에 있는(향락을 즐기는) 두 아버지와의 동일시로 인해, 한국 남성들이 법을 내재화 하는 동시에 이 법을 위반하고자 하는 욕망, 즉 향락을 타자에게 강탈당했다고 느끼기 때문에 병역거부자에 대한 혐오가 그리도 극심했던 게지요.

퀴어들에게 군대가 주는 고통의 경향은 이성애자들에 비해서 더 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개연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안 그래도 퀴어들은 한국 땅에서 살기 힘든 판국인데, 부러 군대를 꼭 가야해? 군대 좀 안가면 어때서? 라는 냉소적인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화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군대는 어떤 젠더나 어떤 섹슈얼리티가 특별히 더 친화적이고 친화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성애자라고 해서 초남성적인, 과도하게 억압적인 초자아로 작용하는 군대가 강요하는 남성성에 대해 거북한 ‘젠더 트러블’을 더 느끼지 못한다는 법도 없을 것이고, 이런저런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군대가 체질적으로 더 맞고 안 맞고의 여부는 천차만별이고 천태만상이고 천변만화할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문제는 군대를 갈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왜 가야하나?”의 문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보자면 군대라는 아버지의 호명에 동일시한다고 해서, 박탈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항상 결핍이 남습니다. 이 잉여가 된 결핍은 소수자에게 과잉향락의 형태로 전이되어 폭력의 투사로 나타납니다. 이들이 강탈당한 듯 보이는 향락은 사실상 우리가 빼앗아 간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군사주의가, 그리고 그것을 되찾는 방법은 모병제와 대체복무제도를 통한 것이라는 점을 설득시키고 함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4. (여성)징병제가 나는 웃긴다

제가 비록 큰집에서 한데서 자서 입은 뼈뿔어졌지만 말은 바로하겠다고, 퀴어고 여성이고 나발이고 군대를 통한 시민권의 인증샷은 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국가에서 국가 안보는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 인도코끼리 방구 끼는 소리입니다. 남의 집 제사상 가서 실컷 절하고 온다고 그 집 식구로 여겨주지 않듯이, 호모 사케르 신분들인 여성과 퀴어들이 군대 갔다 온다고 이 한국 땅에서 상전 대접해줄 줄 안다면 아나 꼴감입니다. 그것은 지구가 멸망하는 날 까지 치고 박고 싸우고 지지고 북아야 할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군대를 가야한다→여성들(퀴어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다→그러므로 여성들(퀴어들)도 입 닥치고 군대를 가야한다’는 국가와 예비역 마초들의 삼단논법은, 여성들(퀴어들)은 평등하다→군대는 평등의 기제로 작동한다→그러므로 여성들(퀴어들)도 군대를 가야한다는 여성징병제의 논리와 흡사합니다. 군대를 가야한다는 논리가 예외 없는 병역의 의무라는 국가의 논리와 동등한 시민권의 지위로서의 군대를 바라보는 퀴어진영과 여성운동진영의 몇몇 논리들은 유사합니다. 또한 ‘군대 가면 평등해진다→평등하려면 군대를 가야한다→고로 군대를 가야한다’는 것은 순환논법입니다. ‘군대 가면 평등해진다’와 ‘평등하려면 군대를 가야한다’라는 전제가 증명이 되지 못함에도 이를 주장하는 것은 선결문제의 오류입니다. 증명되어야 할 전제들을 오히려 주장으로 이용하다니 말입니다.

평등을 위해서라면 지원제로서의 여성군복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지만, 지원

제이긴 하지만 그것이 더 가치적으로 올바르다는 측면에서 보편화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스틴의 화용론, 흄의 정서주의, 칸트의 보편주의를 메타윤리의 분석에 적용시킨 헤어Hare의 규정주의에 의하면, 어떤 주관적인 진술은 명령과 감정을 수반합니다. 즉, “나는 징병제에 찬성한다”는 개인적인 입장은 “그러니깐 모두 입 닥치고 군대나 가버려!”라는 보편화 가능성(명령)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나는 퀴어들(여성들)도 군대를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 역시 “그러니깐 퀴어들(여성들)도 군대를 가란 말야!” 이라는 사실을 함축합니다. 이는 여성징병제를 주장하는 입장과 병역기피를 혐오하고 눈에 불을 키고 군대안가는 역적들을 색출하려는 예비역 마초들의 광기와도 논리가 같습니다. “퀴어(여성)도 국민이다”라는 진술은, 헤어의 규정주의를 조금 더 밀고 나가면, 명령을 함축하므로 “그러므로 퀴어(여성)도 국민처럼 행동해야 한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이는 퀴어가 동등한 법적 권리와 지위를 가진 국민임을 의미하기보다는, 퀴어 역시 유기체적 국가의 신민으로서 자본과 국가의 의무에 봉사하고 희생하는 존재여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한마디로 법적, 제도적 권리는 감언이설에 속아 토사구팽 당하기 십상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퀴어나 여성의 군복무가 옳다고 생각한다”는 단순히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단순 주관주의이지만, 이를 헤어의 규정주의로 메타윤리적으로 분석한다면 “그러니깐 퀴어나 여성이나 군대를 가란 말이야!”라는 발화수반행위적 명령문이 됩니다. 모든 인민들을 군인으로 만드려는 군사주의적 주류 담론과 논리가 같지요. 그러나 칸트는 보편화가 가능하려면 논리적 보편화가능성과 보편적 적용가능성, 보편적 수용가능성을 모두 만족할 때 보편적인 규칙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여성징병제라는 주장이 보편화되려면 수용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그 도덕규칙이 보편적 규칙이 되기를 희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여성(퀴어)들에게 군대는 바람직한 대안이다”는 전칭명제의 주장은 “어떤 여성(퀴어)들은 군대가 바람직한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특칭명제와 모순되는 명제입니다. 퀴어나 여성 중에서도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평화주의자’들과 ‘병역거부자’들이 존재하니깐 말입니다. “나는 여성(퀴어)이기에 병역을 거부한다”라는 말이 그래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여성(퀴어)들이 군대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모든 여성에게 까지 보편화시켜서 규정하려 한다면 그것은 “문을 닫아라”와 같은 규정주의적인 명령문에 불과하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또한 “모든 여성”의 ‘여성’에는 이미 그 자체로 남성의 반대에는 여성만이 있다고 생각하는 흑백논리의 오류입니다. ‘퀴어’들의 존재는, 남성과 여성은 모순관계에 있지 않음을 반증합니다. 오히려 “남성”이나 “여성”은 그 자체로 행위를 강요하는 수행적 호명(오스틴의 화용론^알튀세르의 호명이론^버틀러의 수행적 정체성)에 가깝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여성징병제나 일부 퀴어운동이 평등의 방편으로, 혹은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로 군복무를 이야기하는 것은, 흑인이 KKK에 가입승인이 되었다고 인종차별이 사라질 수 있다는 말과 도찐개찐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센징이 창씨개명을 해서 황국신민이 되었다고 조센징이 니혼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굳이 윤리학이나 논리학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안 그래도 가뜩이나 천민신세인 여성들이나 보고 군역을 지라는 것은 조선시대에서 노비들이 가뜩이나 힘든데 군역까지 지겠다고 자초하는 꼴이지 않을까요?

5. ‘군사주의’라는 네임드 몸을 잡아야 레어 아템이 나오지

저는 평화운동, 여성운동과 성소수자운동진영간의 연대는, 게임에 비유하자면 ‘군사주의’라는 네임드 엘리트 보스 몸을 공통의 적으로 갖고 있다는 점에서 같은 처지라고 생각합니다. 군사주의가 심

한 더러운 세상 한국 사회는 일반서버가 아니라 끊임없이 죽고 죽이는 전쟁서버입니다. 더군다나 군사주의라는 보스몹은 비선공이 아니라 선공몹으로, 무한리젠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라고 말하는 네임드 보스몹이 리젠이 되기 전에 죽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의 레이드를 뛰기 위해 파티를 맺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직업은 다르지만 서로 필요한 직업들이라고나 할까요? 온라인 게임에서도 탱커인 전사와 힐러인 성직자와 딜러인 마법사가 있어야 클리어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탱커+힐러+마법사는 최강의 조합중 하나입니다.) 모든 직업들이 다 필요하듯이, 군사주의라는 선공몹 연대라는 점에 있어서 모두 힘을 합쳐야 합니다. 다시 말해 홀아비 심정 과부가 알아줘야 합니다.

평화운동, 퀴어운동, 여성운동 등의 운동진영들은 서로 다른 길드나 종족에 속해있을 것입니다. 각 직업들이 서로 다른 몹들과 싸우기도 하겠지만, ‘군사주의’라는 굉장히 썩은 몹이 있습니다. 이 몹을 죽이면 모든 직업에게 필요한 레어 아템을 드랍할 것입니다. 탱커가 탱하는 동안 탱커가 죽지 않게 하기 위해 힐러는 힐을 열심히 해야 하고 딜러는 그동안 폭딜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깐 우리는 결국 모두 서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두모두 완소 직업들이니 파티를 맺읍시다.

병역거부운동에서 여성의 위치, 여성의 역할

여옥(전쟁없는세상 활동가)

“여성으로서 이런 활동하기 힘들지 않아요?”

내가 활동을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종종 듣는 질문이다. 그 질문이 군대에 대한 문제제기가 쉽지 않은 군사화된 한국의 현실에서 군대에 가지도 않는 여자가 말을 꺼냈다가 겪게 될 폭력적인 분위기를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병역거부운동을 하며 내가 여성이란 이유로 비난이나 차별을 받았던 경험은 많지 않다. 내가 그런 험한 꼴 당하지 않고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경험을 직접 겪어내면서 변화시켜온 여성활동가들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병역거부자가 남성이고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는 운동의 특성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고있는 병역거부자들만큼, 혹은 그 이상의 활동을 해온 여성활동가들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다회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차원에서, 내가 운동 내부에서 겪은 경험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한다.

- 사람들(특히 언론)은 병역거부를 한 ‘당사자’를 원한다. 그래서 병역거부자가 아닌 여성활동가는 섭외해주고 연락처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인터뷰를 하게 될 병역거부자를 교육시키는(?) 역할까지 하게 된다. 발언이나 강연, 원고청탁도 마찬가지이다. 때로는 이런 일들이 효율이나 적성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기도 한다. 나에게 발언은 너무 어려운 일이었지만 병역거부를 한 남성활동가에게겐 별 것 아닌 일이었다. 강연을 나갈 때면 병역거부의 정의부터 역사, 쟁점, 현재 상황 등 정리하며 준비할 것이 많았는데, 병역거부를 한 남성활동가는 그냥 가서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하면 되기도 했다.

- 병역거부자를 지원하는 활동에 있어서 성별분업은 더욱 두드러졌다. 병역거부를 준비하고 수감생활을 하는 과정이 쉬울 리 없고, 특히 감옥생활이라는 것이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동안 잘 버틸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지속적인 소통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래서 후원회를 꾸리게 되는데 면회조정, 영치금관리 등 실무적인 일은 물론 정서적인 공감과 소통은 상당한 감정노동이다. 지금까지 많은 여성들, 특히 병역거부자의 여자 친구가 기꺼이 그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런 돌봄 노동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에 모두 공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대부분 여성이었다는 것은 확실히 문제가 있다. 군대와 군사주의에 반대하지만 결국 일상에서는 고착화된 성역할이 드러나는 것이다. 돌아보면 단체 내에서도 CO들과 후원회를 챙기는 것은 주로 여성활동가였다. 앞서 얘기한 효율 또는 적성과도 연결되는데, 여성은 돌봄 노동에 익숙한 반면 남성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보니 자연스레(혹은 고민 없이) 성별분업의 구도가 생겨난다.

- 병역거부자들만의 모임이 한때 있었다. 나는 이 모임의 존재를 통해 내가 병역거부자가 아니며 병역거부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자각했고, 매우 화가 났고 서운했던 기억이 난다. 몇 명 되지도 않는 여성활동가들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본인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은 ‘해병대전우회’와 다를 바 없다는 생각도 했다. 출소 이후 활동에 결합하는 병역거부자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수감생활이라

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모였으니 수감자지원이나 병역거부상담 등에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했던 기대도 있었다. 하지만 그 어떤 활동도, 친목도모도 하지 못하고 결국 모임은 사라졌다.

- 병역거부자는 활동여부를 떠나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록되고 기억된다. 하지만 병역거부운동을 함께 했던 여성활동가들의 이야기와 노력과 흔적들은 쉽게 잊혀 진다.

- 어떤 방식으로든 여성활동가들의 문제제기는 계속 있어왔고, 변화를 위한 시도들 역시 있었다. 효율과 적성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것들을 의식적으로 바꾸려고 노력했다. 발언이나 사회 등 드러나는 활동에 의도적으로 여성의 포지션을 만들기도 했고, 인터뷰나 강연 역시 여성의 비중을 높이려고 했다. 병역거부자를 원하는 경우 역할을 분담해서 여성의 자리도 만들어 함께 할 수 있게 했다. 내 개인적으로는 활동 중 돌봄 노동의 비중을 줄이고 익숙치않던 발언이나 강연 등의 비중을 늘렸다. 쉽지 않았지만 그렇게 의식적으로 경계를 허무는 것이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 활동가-수감자 멘토링을 했던 적이 있었다. 수감생활의 힘든 점을 가장 잘 이해해주고 구체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출소한 병역거부자들이기도 하고, 돌봄 노동이 자연스레 여성활동가들에게 치우치는 것을 분담해보려는 의도도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출소한 병역거부자들은 활동에 함께하지 않았고, 어느 정도 유지되는 듯하다가 결국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활동가 숫자가 줄어든 것도 이유였겠지만, 성별분업에 대한 고민의 수위가 다들 달랐던 것 같다. 문제를 인식하는 것과 행동에 옮기는 것은 차이가 있다. 모두의 자각 없이 여성들만의 노력으로는 변화되지 않는다.

- 예전에는 못했던 얘기지만, 요즘엔 병역거부 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자 친구가 후원회장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한다.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 수긍하고 다른 사람(주로 남자후배)이 그 역할을 담당한다. 이것은 분명 이전과는 다르게 변화된 부분이다. 그런데 후원회장을 맡은 남성은 돌봄 노동을 기꺼이 자처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만, 시간이 지나고 조금 더 들여다 보면 제 역할을 충실히 못하는 바람에 결국 보다 못한 다른 여성이 그 역할을 뒤에서 대신하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본다. 결국 이것이 근본적인 변화가 아니었으며 오히려 여성이 이중의 감정노동을 하는 건 아닌가 하는 고민이 들기도 한다.

- 큰 성과를 보이진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노력들은 병역거부운동 내 여성활동가들이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찾아가는 노력이었다고 본다. 또한 병역거부운동이 근본적으로 반군사주의 운동, 평화운동이라는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병역거부운동이 당사자, 소수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그들을 지원하는 활동이 중심이 되고, 군대와 군사주의에 문제제기하는 활동으로 나아가기 힘들기 때문이다. 군사주의에 물들어있는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은 우리 내부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 병역거부의 이유가 다양해지고 있는 요즘, 강한 신념과 도덕성보다는 자신의 나약함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의 경우 더 많은 케어를 필요로 한다는 것.

- 수감자지원활동이 중심이 되어선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조절하려고 한다. 그런데 대체복무제 도입이 무기한 연기되고, 감옥인권이 후퇴하고, 감옥 안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해야 할 일이

많아지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에 감옥에서 힘들어하는 병역거부자의 상황을 공유하고 조언을 구했는데 의외로 많은 병역거부자들이 답을 주었다. 이것은 병역거부자들이 어떤 관심이 생겨서가 아니라 활동가가 별로 없음에 대한 위기의식에 가까운 반응이었다고 본다. 좀 더 현실적으로, 현재 활동하는 사람이 여성활동가 뿐인데, 그렇다면 병역거부운동에서 여성의 역할이 중요해진 것일까.